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3보) -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강경자 · 문주영*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한국건설 연구원 디자인 지원팀

A Study in the Perception of the Harmony of Coloration in Traditional Korean Dress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Part III) - On the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s -

Kyung-Ja Kang · Ju-Young Moon*

Dept.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R&D of New Textile Design, Korea Silk Research Institute

(2004. 2. 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harmony of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s of the traditional Korean dress. The subjects were women's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America. Chromatic colors, red, yellow, and green color, were chosen for the color of the Korean jacket, and achromatic colors were chosen for the color of the skirt, and then the colors' chroma were controlled and value of color was changed. In addition, the three colors of the jacket were combined with four kinds of the colors' tone. Then, the students of both countries assessed about the harmony for 48 colorations which were variously incorporated with the tones of skirt and jacket. The results of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en red jackets were combined with skirts of achromatic colors, students of both countries showed the different views in the range of harmony and disharmony for colorations of white(N9) skirt and vivid jacket, and white(N9) skirt and dark jacket, and black(N2) skirt and light jacket, and black(N2) skirt and dull jacket.

In the tone of yellow jackets and achromatic skirts, students of both countries showed similar responses in that a light yellow jacket was well matched with dark grey(N4) and black(N2) skirt. While Korean students generally evaluated that coloration was well harmonized when low value color was arranged below, American students thought, that the tones of a harmonized skirt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jacket's tones.

When green jackets were combined with skirts of achromatic colors, colorations that showed their different views of both countries were a white(N9) skirt combined with vivid, light, dull jackets, and a light grey(N7) skirt and dull jacket, and a dark grey(N4) skirt and dark jacket.

Among 48 stimuli of coloration on the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s, Korean students evaluated 16 sets and American students judged 28 sets as harmonized colors. Therefore,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Korean students had the sense of harmonious coloration of more narrow range than American students.

Key words: Harmony, Coloration, Chromatic color, Achromatic color, Traditional Korean dress; 조화, 배색, 유채색, 무채색, 한복

I. 서 론

색은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요소이며, 같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관념화되면 보편성을 띠게 되어 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요소가 된다. 색채가 하나의 색만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위의 여러 가지 색과 어우러져 인간의 오감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시각을 자극하여 조화 또는 부조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박은주(1995)도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만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조화로운 색사용으로 인한 다양성의 통일로 아름다움의 완전성을 구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며 배색시에는 단색보다는 두 색이 조합되어 어울릴 때 색채이미지가 강해지며, 표현범위가 넓어져 두 색 이상의 조합에서 주는 인상은 단색에서 주는 인상보다 감정가치가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화판단은 시대와 그 시대의 지배문화,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칙성을 정확하게 구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 동·서양의 색채관에서 검정색은 음을 상징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었지만, 요즘은 디자인이 첨단화, 디지털화 되어가면서 검정색 배색은 보다 현대적이며 대담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으로 인식되고 있다. Barthes(Harvey에서 재인용, 1996)는 '패션에서 검정색은 완전한 색상이다'라고 했으며 Hollander(1996)는 검정색을 착용하는 습관은 다른 어떤 색상의 착용보다 더 강력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한결같은 흐름이라고 함으로써 검정색이 독특한 힘과 개성을 지닌 색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흰색은 순결, 청렴 등을 상징하며 한민족의 심성과 기질에 부합되어 한민족의 대표적인 색으로 알려져 있지만 음양상으로 검정색과 함께 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길레보다는 흉례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서양문화가 도입되면서 흰색은 점점 긍정적인 색으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시대가 변화하고 외래문화가 도입되면서 색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색은 추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표현된다. 좋은 배색이라 할지라도 대상과 목적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특히,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합은 서양복에서는 일반화되어 무채색은 정장이나 캐주얼웨어에서는 보편화된 색채이다. 그러나 한복에서는 특정한 부분이나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변화와 외

래문화의 도입으로 긍정적으로 재인식 된 무채색, 즉 검정색과 흰색뿐만 아니라 이들 색의 중간 명도인 회색을 포함시켜 치마색상으로 하고, 저고리색은 한복 원래의 고유 색상인 노랑, 초록과 빨강을 추가하여 각기 톤을 변화시켜 조합한 후 그 조화감을 평가하게 하였다.

서양복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을 한복에 적용시켰을 때, 한국과 미국 여대생이 느끼는 조화영역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이들 배색에 대한 교차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통해 한국과 미국 여대생이 느끼는 조화영역 및 부조화 영역을 밝힘으로써 배색조화의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외국인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보에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복에서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배색에 따른 조화정도를 밝힌다.
- 2) 한복에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에서 문화간의 차이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의복의 이미지는 형태, 색채, 패턴, 재질, 크기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표현되므로 복식에서 색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색채공학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Judd는 전통적인 조화론을 검토하여 그것들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등간격에 눈금을 매긴 색공간을 전체로 하여 그 중에서 질서있는 것 혹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면 배색은 조화를 이루는 질서의 원리, 둘째, 낮은 색을 째 맞춘 것, 전형적으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색의 변화나 연쇄에 따른 배색은 조화를 이루는 친근성의 원리, 셋째, 구성색의 사이에 어떤 종류의 공통성, 유사성이 있는 배색은 조화를 이루는 공통성의 원리, 마지막으로 대비나 순응 등에 의해 색지각이 불안정하게 되는 배색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불명료성회피(不明瞭性回避)의 원리이다(近江源太郎, 1987/1991).

특히 한복은 두 색 이상의 배색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의복형태로 강혜원, 고애란(1991)은 한복의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이혜숙, 김재숙(1998)은 한복이라는 동일

한 의복형태라도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고 단색과 배색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금기숙(1990)은 조선복식의 색조화 방법상 특징을 보면 명도가 낮은 색을 주로 치마에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혜숙(1998)은 또한 상·하 동색인 회색 한복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으며, 가장 자신감 없고 무능력한 것으로, 박종희 등(2000)의 연구에서는 무채색의 명도에 변화를 줄 경우 의복형태에 따라 이미지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미영(2002)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와 40대 이상의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색상, 톤 별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정도와 의복색으로 선호하는 정도 및 의복색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다른 유채색에 비해 무채색은 의복색 선호도가 일반색 선호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색 선호도와 소유도 역시 무채색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복색으로 무난하고 차분한 무채색계열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소영 등(2002(a))은 서울, 부산지역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을 연구한 결과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은 대담하고 색시한 감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평가하였다. 또 의복 배색연출별 배색방법에 따른 시각적 감성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조배색에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은 무난한 감성으로, 유사배색에서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은 매력 있고 성숙하며 무난한 감성으로, 악센트배색에서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은 성숙하고 무난한 감성으로 평가하였다.

김윤경·강경자(2003)는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의 변화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20대 여대생들은 캐주얼, 포멀 두 가지 의복 스타일 모두 의복색이 무채색일 때 매력있는 것으로 유채색인 경우 밋없고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하지만 현시성 요인에서는 유채색이 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유성요인에서는 의복색이 무채색일 때 여대생 집단은 딱딱하고 어둡고 차갑고 칙칙한 인상으로 지각하였다.

문주영·강경자(2003)는 캐주얼웨어로 유·무채색 상의와 무채색 하의와의 배색에 대한 인상을 연구한 결과 외모평가요인에서는 상의색상이 빨강, 노랑, 초록일 경우, 하의색상이 흰색일 때보다 검정색일 때

긍정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그에 반해 안정성요인과 활동성요인에서는 상의색상이 빨강, 노랑, 초록일 경우 하의색상이 검정색보다 흰색일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무채색과의 조합에 따라 각 인상요인은 차이를 보였다.

강경자(2001, 2002)는 한·미 여대생에게 톤 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복배색 조화감을 평가하게 한 결과 톤 인 톤,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 모두에서 한국 여대생은 조화감을 느끼는 배색의 분포범위가 좁은데 반해 미국 여대생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톤 인 톤 배색에서는 전반적으로 구성색 사이에 공통성이나 유사성이 높은 배색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구성색 간의 거리 요인이나 배색되는 색채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톤 온 톤 배색에서는 한국 여대생은 상·하 톤 차이가 있는 배색을, 미국 여대생은 상·하 같은 톤의 배색을 보다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조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 여대생들의 경우 전통적인 한복 배색을 대하는 일상의 경험이 미국 여대생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정장의 개념이 조화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대체로 일상 복식에서 무채색은 보다 긍정적인 색으로 인식되어 대중화,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패션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한국 전통 복식에 대한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이 계속 필요하고, 특히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지각정도가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한복에서도 무채색이 유채색과 조합되었을 때 어떻게 지각되는지 그 조화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복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얼굴과 헤어 스타일을 통제한 상태에서 치마·저고리의 전통한복



<그림 1> 한복 자극물

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이며 배색구성은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의 톤을 저고리 색과 동일하게 하고 치마색은 다르게 하였으며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저고리의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이며 각 색상의 톤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하였다. 치마의 색은 무채색으로 하였으며 명도에 따라 흰색(N9),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한복 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4D-BOX 6800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

sample		면셀기호
빨강 (Red)	vivid	5R 4/14
	light	5R 8/6
	dull	5R 5/6
	dark	5R 2/6
노랑 (Yellow)	vivid	5Y 8.5/14
	light	5Y 8.5/6
	dull	5Y 7/6
	dark	5Y 3/4
초록 (Green)	vivid	5G 5/10
	light	5G 8/4
	dull	5G 6/4
	dark	5G 2/4
흰색(white)		N9
밝은 회색(light gray)		N7
어두운 회색(dark gray)		N4
검정(black)		N2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톤을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무채색을 포함한 28가지(7색, 4톤) 치마색과 12가지(3색, 4톤) 저고리색을 조합하여 만든 총 336개의 실험 배색으로 선정,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저고리색 즉 빨강, 노랑, 초록 3가지 색상을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각각 4가지 톤인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하였고, 치마색은 4가지 무채색 즉 N9, N7, N4, N2로 하여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가 조합된 총 48개(3색×4톤×4톤)의 자극물만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2) 자극물 평가

한복배색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미국 여대생의 경우 총 336개의 자극물을 20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16~17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 수는 실험조합별로 10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1개의 무선조합에 배치되어 16~17장의 자극물을 평가하였으므로 피험자내 설계와 피험자간 설계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한국 여대생의 경우 피험자내 설계에 의해 한 피험자가 모든 자극물(336)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피험자가 동시에 모든 자극물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한번에 16~17장의 자극물을 제시하고 20회에 걸쳐 색상배색에 대한 조화감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 16~17장은 색상과 톤에 의한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각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3) 조화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속의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화되는-조화되지 않는’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왼쪽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에 배치된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척도의 선호도를 밝히기 위하여 예비조사시와 동일한 대상인 44명의 여대생들에게 예비조사시와 동일한 자극물(5개)을 평가하게 하였으며, 검사-재검사(test-retest) 방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745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생활과학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uman Ecology)에서 consumer science와 environment textile and design을 전공하는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1999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여대생은 G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 83명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초-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구하고 t-검증,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검증)을 하였으며 그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V. 연구 결과

한복의 배색에서 빨강, 노랑, 초록 3가지 저고리 색상을 채도는 통째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하고 치마색은 무채색을 명도변화에 따라 흰색(N9),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으로 구분하여 저고리와 각각 다르게 조합되도록 하였다.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48개의 유채색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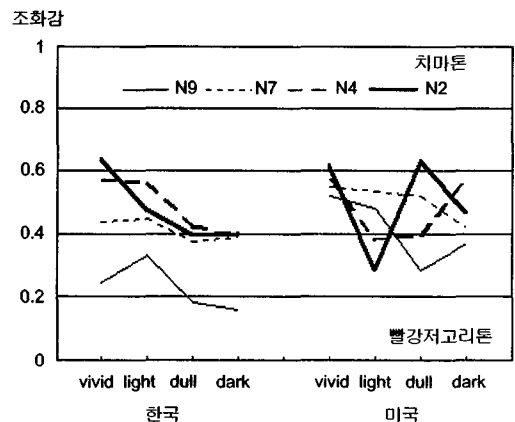
1. 빨강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 배색에 따른 조화감 비교

4가지 톤의 빨강색 치마와 4가지 무채색 치마를 톤

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2>와 <그림 2>, <그림 3>에 나타내었다.

1) 치마색의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저고리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무채색 치마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표 2>와 <그림 2>에서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빨강저고리에 치마색을 4가지 무채색으로 각기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색의 명도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나타낸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치마색의 명도 변화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조화감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의 저고리가 치마 중 흰색(N9)과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문화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비비드 저고리와 밝은 회색, 어두운 회색, 검정색 치마와의 배색에서는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양국 여대생 모두 잘 조화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빨강색 저고리 톤을 라이트 톤으로 통제하여 4가



<그림 2> 치마색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표 2> 빨강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에 대한 한·미 조화감 비교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F값	
	한국	미국	값	한국	미국	값	한국	미국	값	한국	미국	값	한국	미국
N9	0.246 ^{CB}	0.516 ^{BA}	0.0369*	0.331 ^{CA}	0.483 ^{BA}	0.1136	0.181b ^{BC}	0.283 ^{BA}	0.1364	0.157 ^{BC}	0.367 ^{BA}	0.0039**	0.0001***	0.4093
N7	0.436 ^{BA}	0.550 ^{BA}	0.2440	0.445 ^{BA}	0.533 ^{BA}	0.3884	0.375 ^{BA}	0.517 ^{BA}	0.1510	0.390 ^{BA}	0.417 ^{BA}	0.7751	0.2808	0.8358
N4	0.566 ^{BA}	0.567 ^{BA}	0.9907	0.564 ^{BA}	0.383 ^{BA}	0.0756	0.426 ^{AB}	0.400 ^{BA}	0.7925	0.390 ^{AB}	0.567 ^{BA}	0.0761	0.0001***	0.3849
N2	0.635 ^{BA}	0.61 ^{BA}	0.8427	0.478 ^{AB}	0.283 ^{AB}	0.0403*	0.395 ^{AB}	0.633 ^{BA}	0.0143*	0.400 ^{AB}	0.467 ^{AB}	0.5320	0.0001***	0.0522
F값	0.0001***	0.9116		0.0001***	0.3205		0.0001***	0.1115		0.0001***	0.6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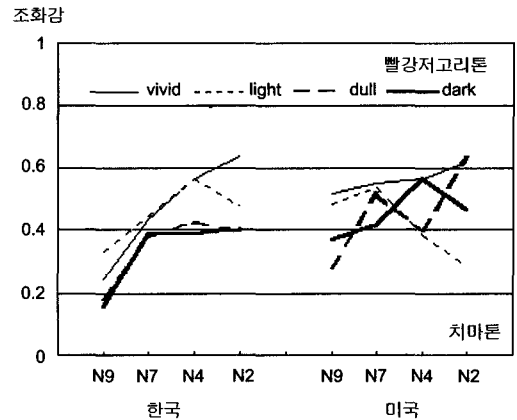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지 톤의 무채색 치마를 각각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양국여대생은 치마색이 검정색(N2)일 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 여대생은 빨강색 라이트 톤의 저고리와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 치마를 조화로운 배색으로, 미국 여대생은 부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한미 여대생간에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즉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저고리와 어두운 톤의 치마가 잘 조화된다고 평가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밝은 톤의 치마와 보다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즉 선행연구(강경자, 2002)에서도 나타났듯이, 빨강의 톤 온 톤 배색에서 미국 여대생은 같은 라이트 톤의 치마·저고리를 조화로운 것으로,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저고리와 짙은 색인 털, 다크 치마를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여 조화되는 톤조합이 빨강 톤 온 톤 배색에서와 일치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치마를 저고리색의 톤보다 짙은 색으로 입는 한복의 전통적인 배색 방법이 무채색을 배색할 경우도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털 톤의 빨강 저고리를 4가지 톤의 무채색 치마와 각기 조합할 경우 한·미 여대생 모두 치마톤이 흰색(N9)일 때 가장 조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한국 여대생은 털 톤 저고리와 어떤 무채색 치마와도 조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치마톤이 밝은 회색(N7), 검정(N2)일 때 미국 여대생은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한국여대생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미국 여대생은 치마톤이 검정색(N2)으로 명도가 매우 낮을 때 털 톤의 빨강색 저고리를 가장 이상적인 배색으로 평가하였다.

다크 톤의 빨강저고리를 4가지 무채색 치마와 각기 배색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치마색이 흰색(N9)으로 명도가 높을 때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한국 여대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은 무채색의 톤에 관계없이 어떤 색의 치마와도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어두운 회색, 검정색과는 다소 조화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2) 저고리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치마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저고리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고명도인 흰색(N9) 치마를 4가지 톤의 빨강 저



<그림 3> 저고리색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고리와 각기 조합할 경우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다크, 털 순으로 조화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저고리 색이 비비드 톤일 경우 조화감 지각에서 양국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색이 고명도인 흰색(N9)일 때 미국 여대생은 털이나 다크 톤의 저고리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상·하의 즉 치마·저고리 색의 명도가 유사할 때, 보다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은 톤에 관계없이 어떤 톤의 저고리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한복의 전통배색과 상반되는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밝은 회색(N7) 치마를 4가지 톤의 빨강 저고리와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저고리의 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 여대생은 어떤 톤의 저고리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다크 톤을 제외한 비비드, 라이트, 털 순으로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어두운 회색(N4)의 치마를 4가지 톤의 빨강 저고리와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비비드 톤의 저고리와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라이트 톤 저고리와와의 조합에서는 한국 여대생이, 다크 톤 저고리와와의 조합에서는 한국보다 미국 여대생이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문화에 따라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평가는 빨강색 톤 온 톤 배색(강경자, 200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색상의 조합보다도 톤 조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치마 톤이 가장 낮은 검정색(N2)의 치마를 4가지 톤의 빨강 저고리와 각기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과 미국 여대생 모두 비비드 톤의 저고리와는 잘 조화된

다고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은 검정치마는 바비톤을 제외한 나머지 저고리톤 조합에서 어떤 톤과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각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검정치마와 덜 톤 저고리와의 조합이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이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는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한국 여대생은 4가지 톤의 빨강 저고리를 톤이 높은 흰색, 밝은 회색 치마와 배색했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어떤 톤의 빨강 저고리라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여대생은 무채색치마와 빨강 저고리의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한국 여대생보다 조화영역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대생은 덜 톤과 다크 톤의 빨강색 저고리의 경우 어떤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여 어둡고 칙칙한 저고리 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여대생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치마를 저고리색의 톤보다 짙은 색으로 입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색방법 즉, 대체로 밝은 색상의 저고리와 짙은 색상의 치마로 명도대비가 강조된 배색방법이 미국 여대생보다 익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랑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에 대한 조화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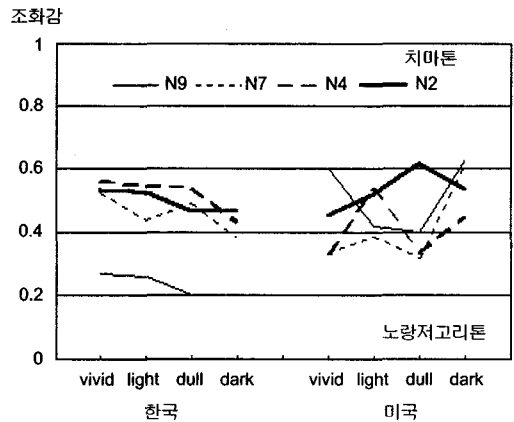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4가지 톤의 노랑색 저고리와 4가지 무채색 치마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는 <표 3>와 <그림 4>, <그림 5>에 나타내었다.

1) 치마색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저고리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무채

색 치마의 톤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그림 4>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비비드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기 배색할 경우 한국여대생은 어울리는 치마의 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의 노랑 저고리와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의 치마를 조화로운 배색으로, 흰색(N9)치마와의 배색은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과는 반대로 지각하여 두 문화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라이트 톤의 노랑 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기 조합할 경우 양국 여대생 모두 유사톤의 배색을 이루는 치마보다는 대조되는 톤의 치마인 어두운 회색(N4), 검정색(N2)과 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덜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 톤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양국 여대생은 치마의 톤이 특히 어두운 회색(N4)으로 중간 톤일 때 차이를



<그림 4> 치마색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표 3> 노랑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에 대한 한·미 조화감 비교

저고리 치마	vivid			light			dull			dark			F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t값	한국	미국
N9	0.268 ^{BA}	0.600 ^{BA}	0.0001***	0.261 ^{CA}	0.417 ^{BA}	0.0730	0.202 ^{BB}	0.400 ^{BA}	0.1451	0.200 ^{BA}	0.633 ^{BA}	0.0066**	0.1113	0.3186
N7	0.563 ^{BA}	0.333 ^{BB}	0.0092**	0.435 ^{BB}	0.383 ^{BA}	0.5616	0.492 ^{AB}	0.317 ^{BB}	0.0572	0.380 ^{BB}	0.617 ^{BA}	0.0174*	0.0001***	0.0459*
N4	0.524 ^{BA}	0.333 ^{BA}	0.0242*	0.545 ^{BA}	0.533 ^{BA}	0.9940	0.543 ^{BA}	0.333 ^{BA}	0.0347*	0.431 ^{AB}	0.450 ^{BA}	0.8541	0.0197*	0.4196
N2	0.534 ^{BA}	0.450 ^{BA}	0.3643	0.523 ^{AB}	0.517 ^{BA}	0.9431	0.466 ^{AB}	0.617 ^{BA}	0.1123	0.446 ^{BB}	0.533 ^{BA}	0.3918	0.1237	0.6513
F값	0.0001***	0.1392		0.0001***	0.5344		0.0001***	0.1454		0.0001***	0.6076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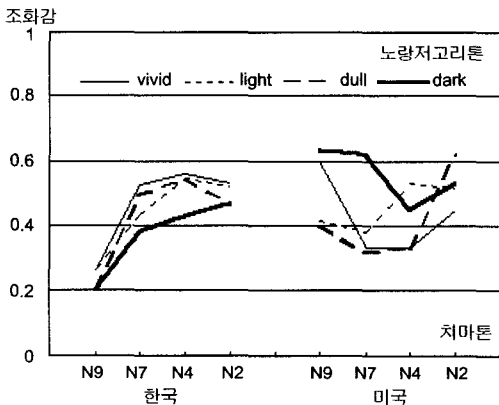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치마가 어두운 회색(N4)이나 밝은 회색(N7)일 때 조화가 잘 된다고 평가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검정색(N2) 치마와 배색될 때 가장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두 문화권의 여대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의 노랑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각 조합할 경우 미국 여대생은 어두운 회색(N4)을 제외한 나머지 치마와 대체로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고, 한국 여대생은 4가지 치마톤 모두와의 조합에서 조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여대생은 톤이 낮은 다크 톤의 노랑저고리와 고명도인 흰색(N9)이나 밝은 회색(N7)의 치마를 매우 조화롭지 못한 배색으로 지각하였고, 미국 여대생은 이들 배색을 보다 잘 어울린다고 평가하여 두 문화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노랑의 톤은 톤 배색에서 미국 여대생이 다크 톤의 노랑 저고리와 밝은 톤인 비비드나 라이트 톤의 노랑 치마를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강경자, 2002)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즉 어두운 톤의 노랑 저고리를 밝은 톤의 노랑 치마와 조합할 경우는 부정적이지만 밝은 톤의 무채색 치마와 조합될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문화권에서도 상·하 톤 조합이 동일 색상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에서 긍정적으로 지각된 것은 조화감이 톤 조합으로만이 아닌 색상과 톤의 조합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저고리색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치마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저고리



<그림 5> 저고리색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그림 5>에서 살펴보면 흰색(N9)의 치마에 4가지 톤의 저고리를 각기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의 어떤 저고리와의 조화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다크 톤의 저고리와의 잘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이들 저고리 톤에 따른 양국 여대생의 조화감 평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밝은 회색인 N7의 치마에 4가지 톤의 노랑 저고리를 각기 조합하여 배색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의 저고리와의 조화되고, 라이트, 다크 톤의 저고리와의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다크 톤 저고리만 조화되는 배색으로 평가하여 저고리 톤에 따른 양국 여대생의 조화감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양국여대생 모두 저고리 톤이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두운 회색(N4)의 치마를 4가지 톤의 노랑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양국여대생은 저고리 톤 중에서도 특히 비비드, 덜 톤 저고리와의 조화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어두운 회색 치마가 비비드, 덜 톤의 저고리와 잘 조화되는 것으로, 미국 여대생은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평가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강경자 2002)의 결과와 비교하면, 한국 여대생의 경우, 노랑색 톤은 톤 배색에서는 비비드, 덜 톤의 노랑저고리와 덜 톤인 노랑치마와의 배색을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여대생은 덜 톤 노랑의 상·하 배색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으로, 노랑과 무채색에서 어두운 회색과의 배색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동일 색상의 톤 조합에 의한 영향보다는 노랑과 회색이라는 색상의 조합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크 톤의 저고리와의 배색에서, 양국 여대생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검정색(N2)의 치마를 노랑 저고리의 4가지 톤과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순으로,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을 제외한 덜, 다크, 라이트 순으로 조화가 된다고 평가하여 한국 여대생이 맑고 밝은 톤의 저고리와 어두운 톤의 치마가 잘 조화된다고 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치마 톤과 비슷한 탁하고 어두운 톤의 저고리가 더 잘 조화된다고 하여 톤 변화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노랑 저고리의 4가지 톤을 각각 통제시키고, 무채색 치마의 톤을 변화시켜 조합했을 때, 한국 여대생은 대체로 치마색의 톤이 낮을수록 조화감이 높았다. 그러나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이나 덜, 다크 톤의 저고리 경우 한국 여대생과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다크톤의 경우 어울리는 치마톤이 다양하게 나타나 문화권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여대생이 느끼는 조화 범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록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에 대한 조화감 비교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4가지 톤의 초록색 저고리와 4가지 무채색 치마를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시켜 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를 <표 4>과 <그림 6>, <그림 7>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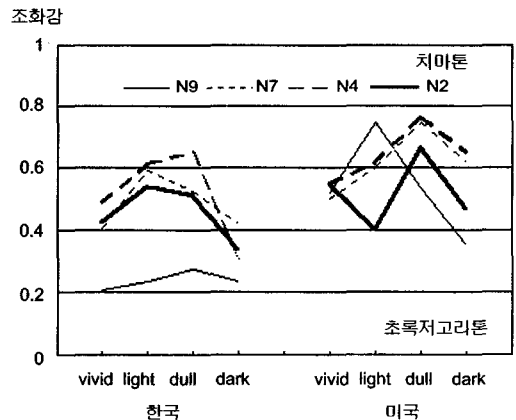
1) 치마색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저고리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치마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초록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기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치마의 명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어떤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치마색의 명도 변화에 관계없이 조화감이 높다고 평가하여 다소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마색이 흰색일 때 문화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트 톤 저고리와 4가지 톤의 무채색 치마를 각기 조합할 경우 흰색(N9) 치마와의 배색 조화감 평가에서 양국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저고리가 흰색(N9) 치마와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검정색(N2) 치마

와 잘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각하여 양문화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 여대생 모두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4) 치마와는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덜 톤의 초록 저고리에 4가지 톤의 치마를 각기 조합할 경우, 덜 톤 초록저고리와 흰색(N9)이나 밝은 회색(N7) 치마와의 배색 조화감 평가에서 양국 여대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국 여대생은 치마의 명도 변화에 따라 조화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특히 명도가 가장 높은 흰색(N9)과의 배색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4가지 치마와의 배색물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양국 여대생 모두 치마 톤에 따라 비슷한 반응을 보여 어두운 회색(N4), 밝은 회색(N7), 검정색(N2), 흰색(N9) 치마의 순으로 조화 된다고 하였다.

다크 톤의 초록 저고리를 4가지 톤의 치마와 배색할 경우 미국 여대생에 비해 한국 여대생이 느끼는 조화감 정도는 대체로 낮았지만 치마 톤의 변화에 따



<그림 6> 치마색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표 4> 초록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에 대한 한·미 조화감 비교

저고리 치마	vivid			light			dull			dark			F값	
	한국	미국	F값	한국	미국	F값	한국	미국	F값	한국	미국	F값	한국	미국
N9	0.208 ^a	0.517 ^{AB}	0.0116*	0.234 ^{CA}	0.750 ^{BA}	0.0000***	0.274 ^{CA}	0.533 ^{AB}	0.0045**	0.232 ^{CA}	0.350 ^{AB}	0.1519	0.3348	0.0610
N7	0.401 ^{BB}	0.500 ^{AA}	0.2560	0.591 ^{abA}	0.600 ^{abA}	0.9097	0.527 ^{BA}	0.750 ^{BA}	0.0143*	0.422 ^{AB}	0.617 ^{AA}	0.0704	0.0001***	0.3198
N4	0.490 ^{BB}	0.550 ^{AA}	0.4937	0.614 ^{AA}	0.617 ^{abA}	0.9729	0.652 ^{AA}	0.767 ^{AA}	0.1569	0.310 ^{bC}	0.650 ^{AA}	0.0005***	0.0001***	0.3557
N2	0.425a ^{BB}	0.550 ^{AA}	0.1668	0.536 ^{BA}	0.400 ^{BA}	0.1340	0.511 ^{BA}	0.667 ^{BA}	0.1172	0.337 ^{bC}	0.467 ^{AA}	0.1726	0.0001***	0.3571
F값	0.0001***	0.9816		0.0001***	0.0663		0.0001***	0.2102		0.0001***	0.1847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치마톤은 a>b>c, 저고리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라 조화정도는 다르게 지각되었다. 특히 치마 톤이 어두운 회색(N4)일 때 한국 여대생은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미국 여대생은 매우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흰색(N9)이나 검정색(N2)같이 명도가 아주 높거나 낮은 무채색 치마와의 배색은 양국 여대생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2) 저고리색 톤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톤별로 치마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저고리 톤에 변화를 준 후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명도가 높은 흰색(N9)의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 색과 각기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평가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 덜, 비비드 순으로 조화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치마 톤과 마찬가지로 저고리 톤이 고명도인 라이트 톤의 저고리와 가장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으며 한국 여대생보다 다양한 저고리 톤의 배색을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밝은 회색(N7)인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 색과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따라 조화감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였으며 밝은 회색(N7) 치마와 라이트나 덜 톤의 저고리가 가장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미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조화되는 배색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저고리가 덜 톤인 경우에 가장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어두운 회색(N4)의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밝은 회색 치마를 조합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상관없이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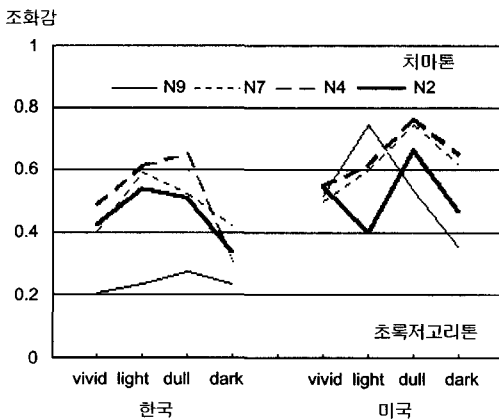
화된다고 지각하여 한국 여대생보다 다양한 톤의 배색을 조화롭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여대생이 어두운 다크 톤의 저고리와 어두운 회색(N4)의 치마를 가장 조화롭지 못한 배색이라고 지각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조화되는 배색으로 평가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 여대생은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4) 치마와 라이트, 덜 톤의 저고리가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N2의 치마를 4가지 톤의 저고리와 각각 조합할 경우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따라 조화감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였다. 한국 여대생은 치마 톤과 대조 톤인 라이트 톤의 저고리와 잘 조화된다고 평가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저고리와 잘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여 조화감에 있어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 여대생은 덜 톤 저고리와 배색은 조화되고 다크 톤 저고리와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에 대한 조화정도를 분석하였다. 유채색인 빨강, 노랑, 초록을 저고리 색으로, 무채색을 치마 색으로 하여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만 변화시킨 후, 치마·저고리의 톤을 다르게 조합한 48개의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중심으로 양국여대생의 지각반응에서 문화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빨강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 배색 16개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한 배색의 수는 한국 여대생은 3개, 미국 여대생은 8개로 나타나 조화영역의 범위는 양국간의 차이를 보였다. 빨강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을 조합했을 때, 한국 여대생은 치마나 저고리 톤의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인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16개 배색에서 무채색 치마의 톤이 고명도와 저명도 일 때, 즉 흰색(N9) 치마와 비비드, 다크톤의 저고리, 검정색(N2) 치마와 라이트, 덜 저고리의 배색에서 양국 여대생은 조화-부조화 영역을 다르게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저고리 색상이 빨강색일 때, 한국 여대생은 색감의 이미지가 선명한 비비드 톤이나 온화하고 여성스런 라이트 톤의 저고리와 다소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저명도의 무채색 치마와 조화가 잘 되는 것으



<그림 7> 저고리색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로, 어둡고 점잖은 느낌을 주는 덜, 다크 톤 저고리는 어떤 톤의 무채색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상의는 밝고 하의는 어두운 한복고유의 배색을 보다 조화가 잘 된다고 평가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비비드 톤의 저고리는 치마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잘 조화된다고 지각 하였다. 또한 덜 톤의 저고리와 밝은 회색(N7), 검정색(N2)의 치마, 다크 톤의 저고리와 어두운 회색(N4)의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하여 문화간의 다소 차이를 보였다.

노랑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 배색 16개 중에서 양국 여대생 모두 조화 된다고 지각한 배색의 수는 7개, 부조화로 지각된 배색의 수는 9개로 나타나 수량적인 면에서 조화범위는 문화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화되는 배색의 종류는 양국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양국 여대생은 라이트 노랑 저고리에 어두운 회색(N4)이나 검정색(N2) 치마가 잘 조화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노랑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배색에서 두 문화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흰색(N9) 치마에 비비드 및 다크 톤 저고리, 밝은 회색(N7) 치마에 비비드 및 다크 톤 저고리, 어두운 회색(N4) 치마에 비비드 및 덜 톤 저고리로 나타났다. 저고리 톤이 비비드 일 때, 한국 여대생은 치마색이 고명도인 흰색(N9)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화된다고 지각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명도가 가장 높은 흰색 치마만이 조화된다고 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저고리 색상이 덜 톤일 때, 한국 여대생은 중명도인 회색 치마와 조화가 된다고 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검정색(N2)과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저고리 색이 다크 톤일 때, 한국 여대생은 어떤 치마와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각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흰색, 밝은 회색, 검정색 치마와 조화가 잘 된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 여대생은 다크 톤의 노랑 저고리가 밝은 톤의 노랑 치마와는 조화되지 않지만(강경자, 2002), 밝은 톤의 무채색과는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조화감 평가에 명도변화, 즉 톤만이 아닌 색상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대체로, 한국 여대생은 명도가 낮은 무거운 느낌의 색이 아래에 배치되었을 때 즉 색의 무게감이 치마에 주어질 때 조화된다고 지각한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에 따라 조화되는 치마 톤이 다양해 한국과는 차이를 보였으며 유채색과 무채색의 배색 조화감에 대한 기준은 문화간의 차이가 있었다.

초록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 배색 16개 중에

서 조화된다고 지각한 배색 수는 한국 여대생의 경우 6개, 미국 여대생의 경우 13개로 나타나 양국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빨강, 노랑 저고리와 배색에서 보다 조화영역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국간의 차이를 보인 배색은 흰색(N9) 치마와 비비드, 라이트, 덜 저고리, 밝은 회색(N7) 치마와 덜 저고리, 어두운 회색(N4) 치마와 다크 저고리로 나타났다.

초록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를 조합했을 때, 한국 여대생은 4가지 저고리 톤 모두 치마 톤의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인 반면에, 미국 여대생은 대체로 치마 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톤이 라이트, 덜 톤일 때 흰색(N9)을 제외한 밝은 회색(N7), 어두운 회색(N2), 검정색(N2)과 조화된다고 지각하였고, 저고리 톤이 비비드나 다크 톤일 경우는 치마 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초록색과 무채색의 톤 조합에 따른 조화감 지각에는 저고리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여대생은 라이트 톤 저고리와 검정색(N2) 치마, 다크 톤 저고리와 흰색(N9)이나, 검정색(N2) 치마와의 배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조화영역의 범위가 넓었다. 이는 조화감 평가에 톤조합의 영향과 함께 색상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인이 자연색인 초록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느낌(이흥규, 1999)이 한복 배색을 지각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유채색 저고리와 무채색 치마의 톤 차이에 따른 총 48개의 톤 배색에 대한 두 문화권의 지각 반응을 보면 조화된다고 지각된 배색 수는 한국 여대생의 경우 16개, 미국 여대생의 경우 28개로 나타나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합에서도 한국 여대생이 미국 여대생보다 조화영역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강경자, 2002)에서 유채색의 저고리·치마가 조합될 때, 한국이 18개, 미국이 30개로 나타난 톤 온 톤 배색시와 매우 유사한 조화영역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는 색상에 의한 조화 방법보다 명도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고 본 Moon과 Spencer의 견해가 톤 온 톤 배색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채색과 무채색의 조합에서도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고리 색상인 빨강, 노랑, 초록을 무채색 치마와 각기 톤별로 조합하였을 때, 양국 여대생은 어떤 톤의 유채색 저고리와 어떤 톤의 무채색 치마가 조합되느냐에 따라, 즉 톤만이 아닌 조합되는 색상에 따라서도 조화

감 평가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날개의 정보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본 Asch(1946)의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대체로 한국 여대생은 저고리 색상과 튠에 상관없이 명도가 높은 무채색 치마 특히, 흰색치마와 조합될 때와 저고리 튠의 명도가 낮아 어둡고 칙칙할 때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 여대생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치마를 저고리 색의 튠보다 짙은 색으로 입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색 방법, 즉 밝은 색상의 저고리와 짙은 색상의 치마라는 명도 대비가 강조된 전통적인 배색방법에 익숙하여 친근하지 못한 배색으로 지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 여대생의 경우 초록 저고리에 대한 조화감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조화감 영역의 범위가 더욱 넓었다. 이는 색채조화에서 친근한 배색은 조화를 이루며 불안정한 배색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 Judd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배색에서는 거의 디테일로만 사용되고 있는 무채색을 한복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치마에 과감히 적용시켜 유채색 저고리와 조화를 이루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별로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무채색을 치마뿐만 아니라 저고리에도 적용시켜 배색 유형에 대한 조화감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화감 평가시 피험자의 범위가 한정되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 -톤 인 튠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 -톤 온 튠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금기숙. (1990). 한국복식미의 탐구. *복식*, 14, 167-184
- 김미영. (2002). 일반색·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1165-1177.
- 김윤경·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395-406.
- 박은주. (1995).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232.
- 신정숙, 이상은, 정혜정. (2000). 전통 염색복에 표현된 동서양의 색채의미. *한국의상 디자인학회지*, 2(1), 75-94.
- 오해순,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노랑의 조형성과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6(6), 865-876.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a)).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5), 715-726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b)).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6(6), 833-842.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이홍규. (1999). *컬러 이미지 사전*. 조형사, 108.
- 주소현,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황색 이미지(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7), 970-981.
- 추선형, 김영인. (1997). 녹색을 중심으로 한 복식의 색채계획. *복식*, 31, 33-46.
- 近江源太郎. (1987). *조형심리*. 권민 옮김 (1991). 사회심리 시리즈, 4. 동국출판사, 238-239.
- Ann Hollande. (1993). *Seeing Through Clothes*.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65.
- John Harvey. (1996). *Men in Blac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2.